

ISSN 1229-8565 (print) ISSN 2287-5190 (on-line)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6(1) : 177~189, 2015

Korean J Community Living Sci 26(1) : 177~189, 2015

<http://dx.doi.org/10.7856/kjcls.2015.26.1.177>

## 경제적 요인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재무관리 요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주영·송계총<sup>1)</sup>·오세구<sup>2)†</sup>

충남대학교 소비자생활정보학과·충남대학교 경영학부<sup>1)</sup>·충남대학교 경영학부<sup>2)</sup>

### Effects of Economic Factors on Happiness: Moderating Effects of Financial Management

Park, Jooyung · Song, Kyechung<sup>1)</sup> · Oh, Segu<sup>2)†</sup>

Dept. of Consumer's life Inform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sup>1)</sup>

School of Busines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sup>2)</sup>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economic factors on happiness in terms of life satisfaction, one of the most important goals in human life, and examines the moderating role of financial management in the effect of financial stress. Data were collected total 341 individuals in Daejeon, Korea(235 college students and 105 women). The factors influencing life satisfaction were analyz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Effects of moderating variables were teste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Subjective financial stress was related to both individualistic happiness and collectivistic happiness, whereas objective financial stress had a negative effect only on collectivistic happiness. Financial management (specifically control of expenditure behaviors) had positive effects on both individualistic happiness and collectivistic happiness. Financial management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stress and happiness. The results have important implications.

**Key words:** happiness, financial stress,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moderating effect

#### I. 서론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행위의 궁극 목적이 행복의 추구하고 실현에 있다고 하였다. 행복

의 사전적 의미는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한 상태”로(Donga new Korean dictionary 2015) 긍정 심리학의 창시자인 Martin Seligman은 행복한 삶의 조건을 즐거운 삶, 적극적인 삶, 의미 있는 삶

접수일: 2015년 2월 14일 심사일: 2015년 2월 14일 게재확정일: 2015년 2월 17일

†Corresponding Author: Oh, Segu Tel: 042-821-7106

e-mail: nice69@cnu.ac.kr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등의 세 가지 측면에 주목하여 제시하였다. 즐거운 삶이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사는 것이며, 적극적인 삶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추구하는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강점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자기실현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고,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삶은 가족, 직장, 지역사회, 국가 또는 신을 위해 봉사하고 공헌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가치를 느낄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하였다(Seligman et. al 2005).

현대인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행복의 적이다. OECD는 지난 2011년부터 주거, 소득, 고용, 공동체, 교육, 환경, 시민참여, 보건, 삶의 만족도, 안전, 일과 생활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행복지수를 발표해 왔는데 2013년 행복지수(Better Life Index) 평가 결과에서 우리나라는 회원국 36개국 중 하위권인 27위였다(Naver news 2013). 또한 Lee(2012)은 “OECD 국가 삶의 질 구조에 관한 연구”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4.2점으로 나타나 OECD 34개국 중 32위를 차지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환경·생태 유지 가능성과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접촉 빈도 등이 반영된 '사회네트워크 안정성 부문'이 최하위인 34위였고, 이밖에 주관적 건강상태(32위), 필수시설을 갖추지 못한 가구 비율(31위), 소수그룹에 대한 관대성(28위), 빈곤율(28위), 국가기관 신뢰도(26위), 고용률(21위), 소득분배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21위) 등도 모두 최하위권 또는 하위권이였다. 또한 2006-2011년 기간 중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고(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2013), 우리나라 4가구 중 1가구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유동(流動)하는 가구로 추정된다고(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2014) 발표함으로써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 정도에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Diener et al.(1999)은 행복이라는 개념이 너무 복잡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과학적으로 엄밀히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행복의 심리학적 대응 개념으로 자신의 삶 전반에 관한

주관적 평가로 정의되는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 개념을 제시하였다. 주관적 웰빙은 인지적 요소인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과 정서적 요소인 긍정적 및 부정적 감정으로 구성되며,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부정적 감정보다는 긍정적 감정을 많이 경험하면 주관적 웰빙 즉 행복이 높아진다고 보는 관점이다(Kim 2009).

최근의 금융위기와 실물경기의 침체는 개인 및 가계의 경제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킴으로써 행복감을 위협하고 있다. 경제적 스트레스는 개인과 가족의 재무상태 변화의 결과로써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곤궁(hardship), 압력(pressure), 부담감(strain) 등 다양한 개념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Rashmita et. al 2008). 또한 경제적 스트레스는 크게 객관적 차원과 주관적 차원에서 논의되는데(Price et. al 2010), 객관적 차원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지출이 수입을 초과했다 라면, 주관적 차원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개인이 인지하는 경제사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Park(1996)에 의하면 월평균 가계소득이 가장 낮은 가계들에서는 인플레이션, 물가인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이 가장 높은 가계 집단에서는 자녀의 과외비에 대한 경제적 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연령별로도 경제적 스트레스 원인에 차이를 보였는데 20대는 주택 임대, 30대는 주택 구입, 40대는 주택 확장, 50대 이후는 의료비와 자녀 대학자금 및 결혼자금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재정문제 발생 시 가장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대처방안은 저축자산을 사용하는 것이다(Park 1996). 따라서 모든 가계에서 미래의 예상하지 못한 위험발생이나 가계 지출을 대비해서 저축이 필요하다. 저축이 없거나 부족한 가계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안이 있는데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렴한 비용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담보물이나 기타 융자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따라서 각종 대출 정보와 지식을 활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대출 조건의 상품을 선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특히 부채를 보유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가계, 보험에 가입한 가계의 경우 매월 부채상환액, 카드대금, 보험료 등이 연체되지 않도록

록 가계 소득의 흐름과 소비지출과의 균형을 맞추는 합리적인 재무관리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 및 청소년기 때부터 저축습관을 길러주며,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무관리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학자들이 행복에 영향을 주는 원인 변수를 찾기 위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해 왔는데, 크게 3 가지 영역에서 진행되어왔다(Yu et al. 2013). 첫째는 인구통계 변수로서의 성별, 소득, 직업, 연령, 학력, 종교 등이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였고, 둘째는 개인의 성격 변수로서의 통제 의 위치, 자기효능감, 자존심 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였고, 셋째는 사회 및 관계적 변수로서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사건들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였다. Kim (2009)은 행복에 대한 세 가지 원인 변수 연구를 다시 크게 성격 원인과 외적·상황적 원인의 2 가지로 나누었는데, Yu et al.(2013)에서의 인구통계 변수와 사회 및 관계적 변수는 외적·상황적 원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동안 발표된 행복의 외적·상황적 원인에 대한 연구 중에는 소득과 재산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았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수입과 재산이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는 하나 그 상관관계는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었다(Diener et al. 1993).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Pereira & Coelho(2013)는 소득수준이 주관적 웰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소비욕구를 충족시키거나 대출제약을 완화시키는 등의 매개변수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종단적으로 이루어진 한 후속 연구인 Veenhoven & Hagerty(2006)에서는 저소득 국가에서는 행복과 수입의 상관관계가 높았지만, 고소득 국가에서는 상관관계가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바 있고, Johnson & Krueger(2006)는 재정 상황에 대한 통제력은 수입과 재산이 생애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소시켜준다고 하였다.

또한 행복의 원인 규명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성격 변수, 더 나아가서는 유전 요인이 행복의 가장 안정적이고 강력한 예측치라고 하였다(Tellegen et al. 1988; Staw et al. 1994; Seo et al. 2009). 최근

영국, 독일, 호주의 대규모 패널 자료를 사용한 연구(Soto1 & Luhmann 2013)에서도 5대 성격 중 감정적 불안정성(Neuroticism)이 수입과 생애만족 간의 조절 역할을 한다고 밝혀진 바 있다. 우리나라 아동 및 청소년 패널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Seong & Kim 2013)에서도 청소년의 자아존재감과 자아탄력감과 같은 개인 특성이 가계소득, 부모, 또래, 학교, 지역사회와 같은 환경 특성보다 청소년의 행복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환경 특성도 개인 특성을 통해 행복에 간접적인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보고되었다.

Lyubomirsky et al.(2005b)은 행복에 대한 연구에서 행복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크게 세 가지의 요인에 중요성 부여하였는데, 유전 50%, 의도적 활동 40%, 환경 10%로 규정되었다. 그들은 의도적 활동의 예로 운동, 웃음, 친절과 같은 행위 활동과, 용서와 자기반성 등을 통해 성격적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지 활동, 그리고 개인적 의지 활동으로서 목표수립과 실천, 내재적 동기 유발에 헌신하기 등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요인과 재무관리 요인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 경제적 요인과 행복의 관계에서 재무관리 요인의 조절효과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는 정부 및 민간 차원의 재무관리교육이 경제적 양극화 현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로 하여금 행복에 이르게 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검증하는 의의가 있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과 자료의 수집

본 연구는 대학생과 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자료 수집은 150만 명 수준 인구의 중부권 도시의 한 대학의 경영학 과목 수강 대학생과 대학교 이웃 중산층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유의표집 하였다. 설문지를 돌리고 수거한 결과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대학생 236부와 주부 105부로 총 341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 2.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경제적 요인으로서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둘째, 재무관리 요인이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셋째로는, 경제적 스트레스와 행복간의 관계에서 재무관리 요인의 조절효과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경제적 스트레스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재무관리 요인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경제적 스트레스와 행복간의 관계에서 재무관리 요인의 조절효과가 존재하는가?

다음 Fig. 1은 이상의 연구내용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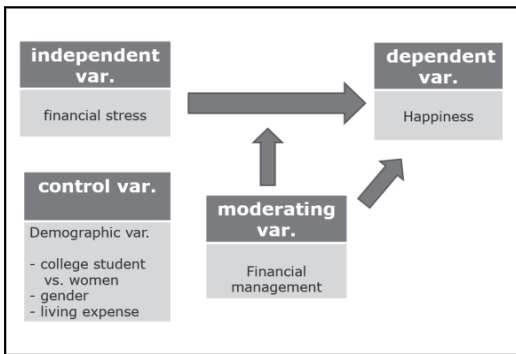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방법

### 1) 종속변수 : 행복

본 연구에서 사용된 종속변수인 행복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관적 안녕의 개념에서 더 나아가 심리적 안녕의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에서 다루는 행복은 심리적 안녕을 뜻하며 자기수용, 환경에 대한 지배력,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삶의 목적, 그리고 개인의 성장을 이룰 때 달성된다(Ryff & Keyes 1995).

상기 심리적 안녕을 뜻하는 행복의 측정을 위하여 Park & Kim(2009)이 만들어 사용한 15개 항목에서 건강을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으로 구분함으로써, 총 16개의 항목을 설문지에 포함시켰다. 16개 항목의 내용은 가족화목, 친구교류, 인간관계, 주위로부터의 인정, 긍정적 사고, 일에 대한 보람, 현실 자부심, 경제적 안정, 여가생활,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높은 자신평가, 성공한 삶, 희망적 미래, 자유정의 사회, 전반적 행복감 등이었으며, 이에 대한 응답은 리커트식 5점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로 하도록 요청되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의 종속변수, 독립변수, 조절변수의 측정을 위한 설문지에 포함된 39개 항목은 측정도구로서의 타당성 분석을 위한 요인분석 과정에서 원래의 변수에 잘 묶이지 않는 6개 항목을 제외하고 결과적으로 다음의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33개 문항-7개 요인으로 축소되었다. 종속변수인 행복 변수에 대한 문항 중에는 2개(긍정적 사고와 여가생활)가 삭제되고, 1개(경제적 안정)는 역코딩 되어 경제적 스트레스 변수라는 항목으로 변수명을 바꾸어 사용되었다.

일반적으로 측정방법이나 도구의 타당성 검정을 위하여 요인분석이 사용되는데 요인분석은 복잡한 자료의 요약 외에도, 변수간의 구조 파악, 불필요한 변수의 제거 및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정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Hair et al.(1995)에 따르면 사회과학에서는 추출된 요인들이 전체분산의 60%이상을 설명할 경우 요인으로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된 33개 문항-7개 요인은 전체분산의 60.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행복 변수는 요인분석 결과 원래의 의도와 달리 자존행복과 관계행복, 2개의 요인으로 나누어짐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를 이 두 세부 변수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행복 변수의 내적일치도인 Cronbach 알파 신뢰성 계수는 0.886으로 높은 편이었다. 세부 변수로서의 자존행복은 0.854, 관계행복은 0.810의 신뢰성 계수를 나타냈다.

Table 1. A factor analysis of happiness, financial stress and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s

	Component						
	happiness		financial stress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happiness (individualistic)	happiness (collectivistic)	financial stress (objective)	financial stress (subjective)	budgeting & evaluating	spending & controlling	earning & saving
V28 My life is successful.	<b>.784</b>	.065	.059	-.157	.117	-.049	.112
V29 I have bright future.	<b>.731</b>	.182	-.065	.014	.080	-.036	-.059
V27 I'm quite good person.	<b>.686</b>	.169	-.036	-.213	-.142	.115	-.102
V26 I'm mentally healthful.	<b>.661</b>	.285	.048	-.101	-.147	.235	-.291
V31 I'm happy.	<b>.646</b>	.206	-.104	-.201	-.001	.025	-.016
V30 I live in free and just society.	<b>.626</b>	-.066	-.109	.055	.265	-.134	.139
V22 I'm proud of my job.	<b>.590</b>	.263	.059	-.201	.118	.110	.242
V25 I'm physically healthful.	<b>.539</b>	.069	.050	-.099	-.145	.245	-.411
<u>V21 My job is worthwhile.</u>	<u><b>.539</b></u>	<u>.316</u>	<u>-.022</u>	<u>-.194</u>	<u>.157</u>	<u>.041</u>	<u>.192</u>
V11 I didn't set aside money I really needed recently.	-.013	-.102	<b>.795</b>	.008	.160	-.156	-.009
V12 I couldn't pay utility bill recently.	-.053	-.149	<b>.785</b>	.038	.122	-.004	.097
V13 I had a hard time because of shortage of money recently.	-.047	.000	<b>.742</b>	.364	-.008	.002	-.029
V8 I have debt.	-.009	.007	<b>.637</b>	.058	.000	.081	.181
V6 I have used of cash advance service.	-.038	-.020	<b>.586</b>	-.151	.076	-.181	.166
<u>V36 My expenses exceed my income.</u>	<u>.023</u>	<u>.067</u>	<u>.413</u>	<u>.292</u>	<u>.108</u>	<u>-.394</u>	<u>-.246</u>
V14The financial situation is good at the moment.(R)	-.152	-.086	-.019	<b>.783</b>	-.073	-.111	.062
V15 My financial situation is better than others.(R)	-.215	-.082	.028	<b>.765</b>	-.016	-.074	.079
V23 My financial situation is stable.(R)	-.313	-.126	.113	<b>.718</b>	-.158	.054	.093
<u>V32 I'm so stressed financially.</u>	<u>-.063</u>	<u>-.059</u>	<u>.427</u>	<u>.549</u>	<u>.070</u>	<u>.082</u>	<u>-.159</u>
V38 I make a list of what I spent every month.	.017	-.078	.112	-.078	<b>.803</b>	-.041	.066
V10 I record income and expenditure.	-.047	-.017	.123	-.040	<b>.740</b>	.063	.102
V37 I make short-, mid-, and long- term financial plans.	.167	-.125	.084	.000	<b>.638</b>	.240	.116
<u>V35 I make weekly and monthly spending plans.</u>	<u>.136</u>	<u>.101</u>	<u>.075</u>	<u>.003</u>	<u>.634</u>	<u>.378</u>	<u>-.109</u>

Table 1. Continued

	Component						
	happiness		financial stress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happiness (individualistic)	happiness (collectivistic)	financial stress (objective)	financial stress (subjective)	budgeting & evaluating	spending & controlling	earning & saving
V17 I have congenial friends.	.176	<b>.834</b>	-.055	-.047	-.009	.001	-.116
V18 I have good relationships.	.429	<b>.740</b>	-.085	.005	-.038	.104	.001
V16 I have a harmonious family.	.264	<b>.635</b>	-.130	-.243	-.083	-.007	-.151
<u>V19 I'm proud because everybody around me recognize me.</u>	<u>.475</u>	<u><b>.600</b></u>	<u>-.064</u>	<u>-.126</u>	<u>-.085</u>	<u>.088</u>	<u>.075</u>
V9 When I spend, I carefully consider my income.	-.018	.145	-.057	.080	.067	<b>.766</b>	.019
V3 I make plans before spending my money.	.091	-.025	.030	-.116	.357	<b>.649</b>	.241
<u>V1 I control my expenditure.</u>	<u>.084</u>	<u>-.022</u>	<u>-.132</u>	<u>-.043</u>	<u>.130</u>	<u><b>.639</b></u>	<u>.008</u>
V5 I earn money and cover my family's expenditure.	.027	-.196	.442	-.009	.182	.052	<b>.712</b>
V4 I earn money and cover my expenditure.	.131	-.088	.204	.259	.037	.240	<b>.688</b>
V7 I'm saving money.	-.041	.137	.005	-.229	.351	.353	<b>.409</b>

Factoring: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Rotation method: Varimax rotation with Kaiser criterion

2) 독립변수 : 경제적 스트레스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경제적 스트레스는 실업, 직무불안, 질병, 장애 등에서 유발되는 소득감소로부터 오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심리적 또는 신체적 긴장, 혼란, 불안 등이 따르는 자극으로 정의된다 (Compas 1987; Seo & Kim 2011).

이러한 경제적 스트레스의 측정에는 실제 경험한 객관적 경제스트레스와 주관적으로 지각한 경제스트레스가 모두 포함되는데, 본 연구의 설문지에서는 Shek(2005)과 Jang & Jeong(2009)이 개발한 항목을 기초로 하여 10개 항목을 만들었고 요인분석 결과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객관적 경제스트레스 6개 항목과 주관적 경제스트레스 4개 항목의 2 개 요인으로 나누어졌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스트레스를 객관적 경제스트레스와 주관적 경제스트레스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경제적 스트레스 변수의 내부일치도인 Cronbach 알파 신뢰성 계수는 0.787로 높은 편이었다. 객관적 경제스트레스와 주관적 경제스트레스 변수는 각각 0.780과 0.751의 신뢰성 계수를 나타냈다.

3) 조절변수 : 재무관리 요인

본 연구의 조절변수인 재무관리행동은 가계의 최종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무자원의 할당 계획과 실천행동의 총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가계재무관리행동이란 전 생애에 걸친 과정으로 적합한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개발하고 실행하며 점진 평가해 나가는 행동을 말한다(Heo & Park 2013).

재무관리행동의 측정을 위한 문항은 Grable & Joo(2006), Grable et al.(2009), 그리고 Park et al. (2010)이 개발한 항목들을 기초로 하여 10개 항목

을 만들었는데 요인분석 결과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행동 4개 항목, 지출통제행동 3개 항목, 부양저축행동 3개 항목 등 3개 요인으로 나누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초점이 재무관리행동 변수에 있기에 재무관리행동 변수는 세 요인을 합한 전반적 재무관리행동 변수와 예산결산행동 변수, 지출통제행동 변수, 부양저축행동의 4개 변수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각 변수의 내적 일치도인 Cronbach 알파 신뢰성 계수는 각각 0.779, 0.736, 0.664, 0.640로 나타나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편이었으나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는 0.6 이상이면 비교적 높은 신뢰도로 간주되고 있다(Chae 1999)

### III. 결과 및 고찰

#### 1. 표본의 구성

본 연구대상자로서 배포된 설문지에 응답한 사람은 대학생 236명과 주부 105명으로 총 341명이었다. 대학생 236명중 남자는 142명, 여자는 94명

이었고, 학년별로는 응답자수가 4학년 102명, 1학년 73명, 3학년 35명, 2학년 26명의 순이었다. 월지출액은 30-40만원이 가장 많아 92명, 그 다음이 20-30만원 78명, 50만원이상 24명, 40-50만원 23명, 10-20만원 13명, 10만원이하 4명의 순이었다.

주부 105명 중 연령별로 40대 44명, 50대 29명, 30대 13명, 60대 7명, 20대 5명의 순이었고 무응답 7명이 있었다. 월지출액은 200-300만원 32명, 300-400만원 20명, 100-200만원 18명, 500만원이상 11명, 400-500만원 10명, 100만원이하 6명 순이었다. 무응답자는 8명이었다.

#### 2. 수집된 자료의 기초 통계

##### 1) 대학생과 주부 표본 간 변수의 차이 분석

Table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학생들에 비해 부인들의 재무관리행동(종합)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구체적으로 예산결산행동과 부양저축행동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Table 2. An ANOVA of economic factors and happiness for college students and women

	Variable	N	Mean	SD	F	p
Financial stress	students	236	2.5297	.62027	.044	.835
	women	97	2.5455	.65479		
	<b>total</b>	<b>333</b>	<b>2.5343</b>	<b>.62957</b>		
Financial management	students	236	2.6315	.65614	16.484	.000
	women	98	2.9359	.53834		
	<b>total</b>	<b>334</b>	<b>2.7208</b>	<b>.63837</b>		
Budgeting& evaluating	students	236	2.4778	.84883	5.158	.024
	women	101	2.6955	.69696		
	<b>total</b>	<b>337</b>	<b>2.5430</b>	<b>.81147</b>		
Spending & controlling	students	236	3.2895	.75541	.628	.429
	women	102	3.3595	.72011		
	<b>total</b>	<b>338</b>	<b>3.3107</b>	<b>.74457</b>		
Earning & saving	students	236	2.1271	.89804	29.219	.000
	women	105	2.7111	.97080		
	<b>total</b>	<b>341</b>	<b>2.3069</b>	<b>.95843</b>		
Happiness	students	236	3.6904	.59100	.480	.489
	women	102	3.6427	.55876		
	<b>total</b>	<b>338</b>	<b>3.6760</b>	<b>.58105</b>		

2) 대학생 및 주부 통합 데이터에서의 분석 대상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Table 3에 의하면, 경제적 스트레스는 지출통제 행동, 행복과는 부적 관계이며, 부양저축행동과는 정적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재무관리행동(종합)은 그 구성 문항이 예산결산행동, 지출통제행동, 부양저축행동과 정적 관계를 보여 주었다. 행복과 정적 관계를 보이는 변수는 지출통제행동으로 나타났다.

3. 경제적 요인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1, 즉 경제적 스트레스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대학생과 주부의 구분, 월지출수준, 성별을 통제하고, 경제적 스트레스와 그

것을 객관적 경제스트레스와 주관적 경제스트레스로 나누어 독립변수로 하였으며, 행복과 그것을 자존행복과 관계행복으로 나누어 종속변수로 한 계층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의 Table 4에 요약되어 있다.

Table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경제스트레스는 행복, 그리고 세부 요인인 자존행복과 관계행복 모두에 p=0.001 수준에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그리고 경제스트레스를 객관적 경제스트레스와 주관적 경제스트레스로 구분하여 분석한 모형 2에서는 주관적 스트레스가 행복과 자존행복, 관계행복 모두에 p=0.001 수준에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Table 3. Economic characteristics and correlation coefficients

	N	Mean	SD	1	2	3	4	5	6
1 Financial stress	333	2.5343	.62957	1					
2 Financial management	334	2.7208	.63837	.067	1				
3 Budgeting & evaluating	337	2.5430	.81147	.074	.774**	1			
4 Control of expenditure	338	3.3107	.74457	-.133*	.704**	.377**	1		
5 Earning & saving	341	2.3069	.95843	.184**	.794**	.409**	.314**	1	
6 Happiness	338	3.6760	.58105	-.341**	.065	.036	.154**	-.038	1

Table 4. A summary of regression analysis of financial stress and happiness

	Happiness		Individualistic happiness		Collectivism happiness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Constnat	4.329***	4.599***	4.117***	4.464***	4.560***	4.746***	
Contrl var.	College student =1; women =0	.027	-.024	.086	.025	-.041	-.072
	Monthly expenditure	.129*	.117*	.088	.073*	.140+	.133*
	Male =1; female= 0	-.101+	-.687	-.170**	-.155	-.015	-.007
Independent var.	Financial stress(total)	-.323***		-.264***		-.315***	
	Objective financial stress		-.034		.034		-.099+
	Subjective financial stress		-.377***		-.375***		-.297***
F	12.973***	14.408***	9.501***	12.830***	12.142***	11.095***	
R <sup>2</sup>	.143	.188	.108	.171	.135	.151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Numbers in Table 4 indicate β (standardized coefficient).



연구문제 2, 즉 재무관리행동이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대학생과 주부의 구분, 월지출수준, 성별을 통제하고 재무관리행동과 이것을 3개 요인으로 나눈 예산결산행동, 지출통제행동, 부양저축행동을 독립변수로 하였고, 행복과 그것을 2개 요인으로 나눈 자존행복과 관계행복을 종속변수로 한 계층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의 Table 5에 요약되어 있다.

Table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재무관리행동은 행복과 그 하위요소 중 자존행복에 각각  $p=0.05$ 와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재무관리행동과 관계행복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재무관리행동의 세부 요인 중 지출통제행동만 행복, 자존행복, 관계행복 모두와 각각  $p=0.01$ ,  $p=0.05$ ,  $p=0.0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재무관리행동은 저축을 가능하게 하거나 증대시킬 수 있는데 재무관리행동을 함으로써 관계행복에 드는 비용은 현상유지하거나 줄이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4. 경제적 요인과 행복과의 관계에서 재무관리 요인의 조절효과

연구문제 3에서 제시한 경제적 스트레스와 재무관리행동이 상호작용하여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계층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Table 6과 Table 7에 요약되어 있다. Table 6은 경제스트레스 중 객관적스트레스와 세부 재무행동과의 상호작용의 효과를 분석한 것이며, Table 7은 주관적 스트레스와 세부 재무행동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Table 6에서 보면 객관적 경제스트레스와 자존 및 관계 행복간의 관계에서 3개의 세부 재무행동 중 지출통제 변수가 조절변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지출통제행동이 자금부족으로 인한 아파트 관리비 및 신용카드 대금 연체 빈도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Table 7에서 주관적 경제스트레스의 경우에는 어떤 재무관리행동과의 상호작용도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4 ~ Table 7의 Durbin Watson test 결과, 대부분의 값이 2에 가까움으로서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각 독립변수들에 대한 VIF 값 역시 10 이하의 값을 보임으로서 다중공선성

Table 5. A summary of regression analysis of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associated with happiness

	Happiness		Individualistic happiness		Collectivism happiness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Constant	3.274***	3.028***	2.944***	2.817***	3.644***	3.285***	
Contrl var.	College student =1; women =0	.016	.035	.085	.080	-.041	-.023
	Monthly expenditure	.167**	.170**	.130*	.126*	.164**	.174**
	Male=1; female=0	-.118+	-.103	-.195**	-.190**	-.021	.000
independent var.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total)	<b>.116*</b>		<b>.190**</b>		.015	
	Budgeting & evaluating		-.013		.082		-.103
	Control of expenditure		<b>.203**</b>		<b>.144*</b>		<b>.213***</b>
	Earning & saving		-.028		.025		-.077
F	4.235**	4.225***	6.312**	4.574***	2.712*	4.140***	
R <sup>2</sup>	.051	.075	.074	.091	.033	.074	

- +  $p < .10$  \* $p < .05$ , \*\* $p < .01$ ,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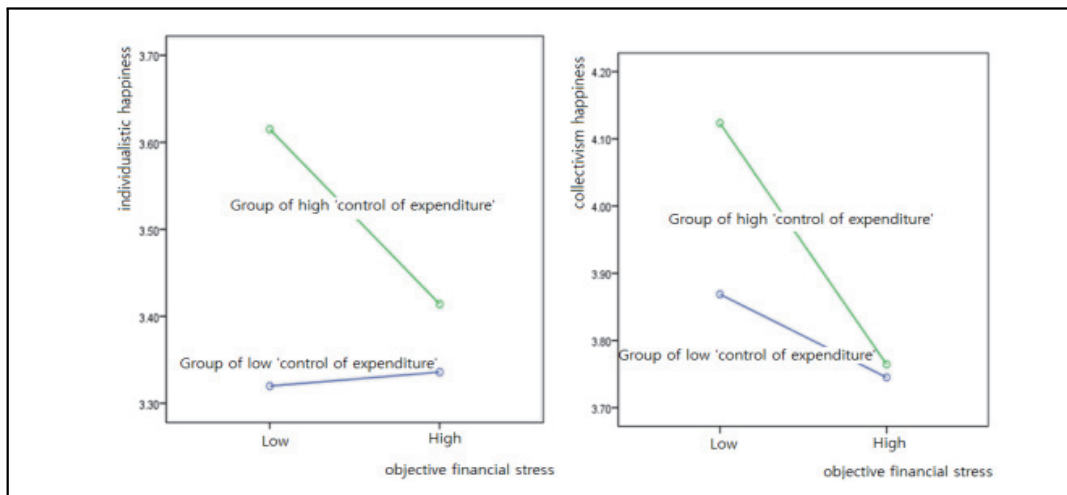
- The numbers in <table 5> are  $\beta$  (standardized coefficient).

**Table 6.** A summary of regression analysis of interaction effect of objective financial stress and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Individualistic happiness			Collectivism happiness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1	Model 2	Model 3	
Constant	3.409***	2.994***	2.690***	3.694***	3.535***	2.837***	
Contrl var.	College student =1; women =0	.077	.092	.092	-.052	.000	-.011
	Monthly expenditure	.117*	.113*	.107+	.165**	.167**	.155**
	Male=1; female=0	-.220**	-.197**	-.188**	-.020	-.136	-.007
Independent var.	Objective financial stress		-.100+	.067		-.140*	.269
	Budgeting & evaluating		.108+	-.035		-.070	-.178
	Control of expenditure		.113+	.453**		-.169**	.548***
	Earning & saving		.046	-.191		-.054	-.154
Moderating var.	Objective financial stress x budgeting & evaluating			.283			.217
	Objective financial stress x control of expenditure			<b>.682*</b>			<b>-.751**</b>
	objective financial stress x earning & saving			.380			.165
F	4.528**	4.154***	3.654***	3.991**	4.243***	3.426*	
R <sup>2</sup>	.041	.087	.107	.036	.088	.110	
Adjusted R <sup>2</sup>	-.032	.066	.078	.027	.068	.081	
△ R <sup>2</sup>	.041	.048	.021	.036	.056	.021	

+ p< .10 \*p< .05, \*\*p< .01, \*\*\*p< .001

Numbers in Table 6 indicate β (standardized coefficient).



**Fig. 2.** Interaction effect of objective financial stress and control behavior of spending on happiness

Table 7. A summary of regression analysis of interaction effect of subjective financial stress and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on happiness

	Individualistic happiness			Collectivism happiness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1	Model 2	Model 3	
Constant	3.409***	3.939***	3.809***	3.694***	4.346***	3.795***	
Contrl var.	College student =1; women =0	.077	.035	.030	-.052	-.066	-.073
	Monthly expenditure	.117*	.093 <sup>+</sup>	.098 <sup>+</sup>	.165**	.149**	.153**
	Male=1; female=0	-.220**	-.170*	-.166**	-.020	.018	.023
Independent var.	Subjective financial stress		-.357***	-.308		-.322***	-.124
	Budgeting & evaluating		.058	.143		-.122*	-.106
	Control of expenditure		.108 <sup>+</sup>	.026		.181**	.225
	Earning & saving		.054	.194		-.056	-.183
Moderating var.	Subjective financial stress x budgeting & evaluating			-.107			-.025
	Subjective financial stress x control of expenditure			.123			-.059
	Subjective financial stress x earning & saving			-.166			-.283
F	4.528**	11.399***	8.002***	3.991**	9.564***	6.838***	
R <sup>2</sup>	.041	.205	.207	.036	.179	.183	
Adjusted R <sup>2</sup>	-.032	.187	.181	.027	.160	.156	
△ R <sup>2</sup>	-.041	.164	.002	.036	.143	.005	

<sup>+</sup> p < .10, \*p < .05, \*\*p < .01, \*\*\*p < .001

Numbers in <Table 7> indicate β (standardized coefficient).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Fig. 2에 의하면, 객관적 스트레스가 낮은 상황에서는 지출통제행동이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보다 자존 및 관계 행복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으며, 객관적 경제스트레스가 높아질 때, 지출통제행동이 많은 사람의 경우 적은 사람보다 더 급격하게 행복감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지출통제행동이 적은 사람들은 객관적 경제스트레스가 높아질 때, 관계행복이 낮아지는 경험을 하지만, 자존행복의 변화에는 둔감하다는 것이 위 그래프의 해석이다.

만일 이 결과가 본 연구의 표본에 특유한 현상이 아니고 후속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검증된다면 이러한 지출통제행동의 역할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는 가계소비 교육과 정책에 큰 과제가

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가계 구성원으로서의 대학생과 주부들이 겪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행복한 삶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경제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연구되고 있는 재무관리행동은 경제스트레스와 행복 사이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첫째, 경제적 스트레스는 인간의 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과거 전통적인 연구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활의 기본적 필요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행복을 느끼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경제스트레스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주관적 경제스트레스가 자존행복과 관계행복 모두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01$ ). 이는 가계들의 객관적 재정상태가 비슷한 상황에서 가계구성원들이 자기 가계의 재정상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막연하게 걱정만 한다면 행복감이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셋째, 재무관리행동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재무관리행동은 행복과 그 하위요소 중 자존행복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재무관리행동의 하위요소 중 지출통제행동만이 자존행복( $p < 0.05$ )과 관계행복( $p < 0.001$ ) 모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출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지출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행동이,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며 성공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며, 가족 및 친구와의 인간관계나 주위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재무관리행동 중 지출통제행동이 객관적 경제스트레스와 자존행복 사이에서는 정적으로( $p < 0.05$ ) 상호작용하며, 객관적 경제스트레스와 관계행복 사이에서는 부적적으로( $p < 0.01$ )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스트레스가 왔을 때 재무관리행동을 함으로써 현재는 어렵지만 미래를 희망적으로 인식하게 된다는지, 어려움에 대처하는 자신의 활동에 대해 자부심을 가짐으로 인해 자존행복이 상승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행복에서는 교제에 드는 비용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부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섯째, 재무관리행동은 주관적 경제스트레스와 행복 사이에서 조절변수 역할을 하지 않아 아무런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지출통제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의 경우 적게 하는 사람에 비해, 객관적 경제스트레스가 낮은 상태에서 자존행복 및 관계행복 수준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지출통제 교육 및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필요성을 충분히 뒷받침해 준다고 하겠다. 또한, 지출통제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적게 하는 사람들에 비해, 객

관적 경제 스트레스가 높아질 때에 자존행복과 관계행복 모두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지출통제행동이 많은 사람들은 적은 사람들에 비해 객관적 경제스트레스가 높아지는 상황을 미연에 적극적으로 방지하려고 할 것이며, 경제적 스트레스가 높아질 문제 상황을 예상하고 대처방안을 조기에 마련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지출통제행동을 포함한 재무관리행동이 우리 삶의 질이나 행복에 미치는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긍정 심리학’의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Seligman et al. 2005). 행복의 원인 변수로 유전이나 성격이 50%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40%가 전문가의 개입 활동으로 긍정적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긍정심리학의 관점이다(Lyubomirsky et al. 2005a). 여기에 효과적인 재무관리행동의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있다. 향후 재무교육, 재무상담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며, 교육 대상의 성별, 연령, 소득수준에 따른 전문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Chae SI(1999) Social research method and analysis (Second Addition): Hakhyunsa
- Compas BE(1987) Coping with stres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Psychol Bull* 101(3), 393-403
- Diener E, Sandvik E, Seidlitz L, Diener M(1993)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subjective well-being. *Soc Indic Res* 28, 195-223
- Diener E, Suh EM, Lucas RE, Smith HL(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 Bull* Vol 125(2), 276-302
- Grable JE, Joo SH(2006) Student racial differences in credit card debt and financial behaviors and stress. *Coll Stud J* 40, 400-408
- Grable JE, Park JY, Joo SH(2009) Explaining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for Koreans living in the United States. *J Consum Aff* 43(1), 80-107
- Hair JF Jr, Anderson RE, Tatham RL, Black WC(1995) *Multivar data Anal* (3rd ed). New York: Macmillan
-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2013) *Health Welf Issue & Focus* 211 issue
-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2014) *Health Welf Issue & Focus* 223 issue

- Heo GO, Park GY(2013) A study on the effect of risk tolerance and status quo bias on search behavior of financial information,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and satisfaction for economic life of households. *Financ Plan Rev* 6(1), 1-26
- Jang YO, Jeong SR(2009) The influences of economic stress and coping behavior on the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of housewives. *J Korean Home Manag Assoc* 27(3), 129-143
- Johnson W, Krueger RF(2006) How money buys happiness: Genetic and environmental processes linking finances and life satisfaction. *J Personal and Soc Psychol* 90(4), 680-691
- Kim JY(2009) Happiness : A new horizon of organizational behavior, *Korean J Hum Resour Dev*, 123-141
- Lee NC(2012) A Study on the structure of quality of life in OECD member countries *Health & Soc Welf Rev* 32(2), 5-40
- Lyubomirsky S, King, LA, Diener E(2005a) The benefits of frequent positive affect: does happiness lead to success? *Psychol Bull* 131, 803-855
- Lyubomirsky S, Sheldon KM, Schkade D(2005b) Pursuing happiness: The architecture of sustainable change. *Rev of Gen Psychol* 9, 111-131
- Naver(2013) Korea, happiness index 27th out of 36 developed countries. Available fr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2&aid=0000012409>
- Dusan Donga editorial department(2015) Donga new Korean dictionary: Dusan Donga
- Park JY, Grable JE, Seo JB(2010) The role of locus of control in shaping financial behavior: A comparison of models for Koreans and Americans. *J Consum Stud* 21(3), 263-288
- Park SW(1996) Financial problems and coping plan by the household financial management style. Thesis of Master Degr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Dept. of Home Management
- Park YS, Kim EC(2009) Factor influencing happiness among Korean adults : The influence of occupational achievement, success of children, emotional support and self-efficacy. *The Korean J Woman Psychol* 14(3), 467-495
- Pereira M.C., Coelho F(2013) Untangl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subjective well-being: The role of perceived income adequacy and borrowing constraints. *J Happiness Stud* 14, 985-1005
- Price SJ, Price C., McKenry PC(2010) Families & change: Coping with stressful events and transition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 Rashmita S, Mistry RS, Lowe ED, Benner AD, Chien N(2008) Expanding the Family Economic Stress Model: Insights from a Mixed-Method Approach. *J Marriage and Family* 70(1), 196-209
- Ryff CD, Keyes CL(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 Personal and Soc Psychol* 69(4), 719-727
- Seligman M, Steen TA, Park N, Peterson C(2005) Positive psychology progress. *Am Psychol* 60(5), 410-421
- Seo JB, Kim JH, Yu JM(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and subjective well-being: Focused on big 5 personality factors and BAS/BIS. *Korean Psychol J Cult*, 15(1) (a special issue), 169-186
- Seo JW, Kim MJ(2011) Dining out behavior and food taste preference under economic stress: Focus on undergraduate student consumers. *J Foodserv Manag*, 14(4), 45-63
- Seong EM, Kim GH(2013)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nalysis among happiness, personal traits, and environmental traits of adolescents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ud on Korean Youth* 24(4), 177-202
- Shek DT(2005) Economic stress, emotional quality of life and problem behavior in Chinese adolescents with and without economic disadvantage. *Soc Indic Res* 71, 363-383
- Soto1 CJ, Luhmann M(2013) Who can buy happiness?: Personality traits moderate the effects of stable income differences and income fluctuations on life satisfaction. *Soc Psychol and Personal* 4, 46-53
- Staw BM, Sutton RI, Pelled LH(1994) Employee positive emotion and favorable outcomes at the workplace. *Organ Sci* 5, 51-71
- Tellegen A, Lykken D, Bouchard TJ, Wilcox KJ, Segal NL, Rich S(1988) Personality similarity in twins reared apart and together. *J Personal and Soc Psychol* 54(6), 1031-1039
- AH V, Ferry D(1980) Measuring and assessing organizations. New York: Wiley Interscience
- Veenhoven R, Hagerty M(2006) Rising happiness in nations 1946-2004. A reply to Easterlin. *Soc Indic Res* 79, 421-436
- Yu MS, Jeong GS, Park SH, Cha JR, Hong GP(2013) Children's and Adolescents' Perceptions of Happiness. *J Korean Home Manag Associ* 31(3), 15-26